



▶ 재담의 시작, 관객의 관심 유도, 춤에서 대사로의 전환, 새로운 사건의 시작.

말뚝이: 쉬이, (춤과 반주 그친다.)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오음 육률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홀뚜기
뿔아다 불고 바가지장단 좀 쳐 주오. **조롱** 악공의 극 개입 **좋은 반주** **안 좋은 반주**

양반들: 야아, 이놈, 뭐야! **양반의 호통**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용두 해금, 북, 장고, 피리, 젓대 한 가락도 뿔지 말고 건건드러지게 치
라고 그리하였소. **말뚝이의 변명** **멋있고 아름답고 부드럽게**

양반들: (합창) 건건드러지게 치라네. (굿거리장단으로 춤을 춘다.) **양반의 안심**

생원: 쉬이. (춤과 장단 그친다.) 말뚝아. 재담의 끝, 갈등의 일시적 해소, 재담 사이의 경계, 흥취와 분위기 고조

말뚝이: 예에.

생원: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말뚝이와 양반의 신분적 관계**

말뚝이: 예에,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국 말어 일조식하고, 마구간에 들어가 **노새 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술질
일찍 아침을 먹고 **언어유희, 발음의 유사성 이용.**

을 활활 하여 말뚝이님 내가 타고 서양 영미, 법덕, 동양 삼국 무른 메주 뉘듯 하고, 등은 여울이요, 서는
자신을 높여 양반 조롱. **프랑스와 독일** **거침없이 다니고**

구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드리 북향산 방방 곡곡 먼먼촌촌이, 바위 툼툼이, 모래 켹켹이, 참나무 곁곁이
다 찾아다녀도 샌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 **조롱** **첩어의 사용**

(중략) **샌님 비슷한 놈** ▶ **머물 곳.**

생원: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새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리 돌아다니느냐?

말뚝이: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바퀴 돌면서) 예에, 이마만큼 터를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쪼
특별한 무대장치가 없음 ▶ **마구간을 새처로 정함**

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새처를 잡아 뵈습디다. **조롱**

생원: 이놈, 뭐야! **호통** ▶ **정남향**

말뚝이: 아, 이 양반, 어찌 듣소. 자좌오향에 터를 잡고, 난간 팔자로 오른각과 입구 자로 집을 짓되, 호박
주초에 산호 기둥에 비취 연목에 금과 도리를 걸고 입구 자로 풀어 짓고, 쳐다보니 천판자요, 내려다보니
주춧돌. **서까래를 받치기 위해 기둥 위에 건너지르는 나무.**

장판방이라. 화문석 찢다 펴고 부벽서를 바라보니 동편에 붙은 것이 달박녕정 네 글자가 분명하지가, 서편을
장판이 깔린 방. **벽에 붙은 글.** **욕심이 없어 마음이 깨끗하고 평안함.**

바라보니 백인당중유태화(百忍堂中有泰和)가 완전히 붙어 있고, 남편을 바라보니 인의예지(仁義禮智) 북편을
백 번 참는 집에 큰 평화가 있다.

바라보니 효제충신이 분명하니, 이는 가위 양반의 새처방이 될 만하고, 문방제구 불작시면 용장봉장, 궤, 두
가구

지, 함룡, 반닫이, 셋별 같은 낯요강, 낯대야 받쳐 요기 놓고, 양칠간죽, 자문죽을 이리저리 맞춰놓고, 삼털
같은 칼담배를 저 평양 동푸루 선창에 돼지 똥물에다 축축 축여 뵈습디다. **조롱** **안 좋은 담배**

생원: 이놈, 뭐야! **호통** ▶ **좋은 담배**

말뚝이: 아, 이 양반 어찌듣소. 쇠털 같은 담배를 꿀물예다 축여 뵈다 그리하였소. **변명**

양반들: (합창) 꿀물예다 축여 뵈다네. (굿거리장단에 맞춰 일제히 춤을 춘다. 한참 추다가 춤과 음악이 끝나
고 새처방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 **안심**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음

양반들: (새처 안에 앉는다.)



갈 래 : 탈춤(가면극)의 대본, 민속극

성 격 : 해학적, 연행적, 풍자적, 평민적, 서민적

주 제 : 양반에 대한 풍자와 비판

특징 :

- ① 반어, 익살, 해학, 풍자가 두드러진다.
- ② 비속어와 한자어가 동시에 사용되어 언어 사용의 양면성을 보인다.
- ② 양반을 조롱하는 재담과 언어 유희가 돋보인다.
- ③ 조선 후기 평민 의식이 가장 극명하게 표현된 예술이다.
- ④ 각 과장은 다른 과장과 독립적인 내용과 구조를 갖고 있다. (→옴니버스식 구성)
- ⑤ 춤과 노래가 연희(演戲) 상황에 활용된다.
- ⑥ 악공과 청중이 극의 진행에 참여할 여지가 마련되어 있다.(→관객의 극중 참여 가능)
- ⑦ 공연 장소와 극중 장소가 엄격하게 나뉘지 않고 융통성 있게 활용된다.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다.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다.)
- ⑧ <봉산 탈춤>은 황해도 해서 지방에서 유행하던 탈춤으로 전체 7과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과장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이야기로 되어 있다.

봉산탈춤의 구성

구성단계	내용
1과장, 사상좌춤	❑ 상좌 넷이 사방신에게 배례하는 의식무이다.
2과장, 팔목중춤	❑ 제1경 목중춤 : 여덟 목중이 차례로 등장하여 각자 과계 과정을 연출한다. ❑ 제2경 법고놀이 : 목중들이 법고를 가지고 익살과 재담으로 법고놀이를 한다.
3과장, 사당춤	❑ 홀아비 거사가 등장하여 어색하게 춤을 추고 있으면 6명의 거사들이 치장한 사당을 열고 등장한다. 홀아비 거사는 사당을 희롱하다 쫓겨난다. 사당과 거사들이 놀량사거리를 합창하며 질탕히 놀다가 전원 퇴장한다.
4과장, 노장춤	❑ 제1경 노장춤 : 목중들이 노장을 능욕하다가 소무를 데려다 놓고 퇴장한다. 노장은 소무의 유혹에 빠져 파계한다. ❑ 제2경 신장수춤 : 노장이 소무를 위해서 신장수를 숙이고 신을 빼앗는다. ❑ 제3경 취발이춤 : 취발이가 노장을 물리친 뒤 소무와 살림을 차려 아이를 얻는다.
5과장, 사자춤	❑ 노장을 파계시킨 목중을 벌하기 위해 부처님의 사자(使者)인 사자가 등장한다. 목중들이 회개하였다는 말을 듣고 용서하고 함께 화해의 춤을 춘다.
6과장, 양반춤	❑ 양반의 하인인 말뚝이가 재담과 독설로 시골 양반을 공격하며 풍자한다.
7과장, 미알춤	❑ 난리중에 헤어졌던 영감과 미알 할미가 놀이판에서 다시 만나지만 찻 덜머리집 때문에 다투다가 미알 할미가 죽게 되고 남강 노인이 지노귀곳을 해준다.

해 설

전체가 7마당 5거리로 구성되었으며, 본격적인 탈놀이에 들어가기 전 '길놀이'로부터 시작된다. 악사의 주악을 선두로 사자·말뚝이·취발이·포도부장·소무·양반·상좌·노장·남강노인의 순으로 열을 지어 읊내를 일주하는데, 원숭이가 앞뒤로 뛰어다니며 장난한다. 길놀이가 끝나면 봉산탈춤의 중흥자(中興者)인 안초목을 위령(慰靈)하는 고사를 지낸다. 해가 지면 무동(舞童)춤·줄타기·땅재주 등의 곡예와 풍물놀이로 흥을 돋구다가 밤늦게 탈춤놀이가 시작된다.

제1사상좌(四上佐) 춤마당은 4명의 상좌가 나와 4방신(四方神)에게 배례하는 의식춤을 춘다. 제2팔목중 춤마당의 첫째거리는 목중춤으로, 8명의 목중이 차례로 나와 자신들의 승려생활을 파계하는 모습을 연출한다. 둘

째거리는 버꾸놀이로 목중들이 버꾸를 들고 나와 '버꾸놀이하자'를 "벗고 놀이하자"로 말하면서 서로 희롱한다.

제3사당 춤마당에서는 사당과 거사들이 함께 어울려 가면을 위로 젖혀 쓰고 놀랑·앞산타령·뒷산타령·경발림 등의 노래를 주고받는다. 제4노장 춤마당의 첫째거리는 많이 알려진 노장춤으로 노장이 소무의 유혹에 빠져 타락하는 장면을 격조높게 풍자하였다. 둘째거리는 신장수가 등장하여 노장에게 신을 파는데, 강도로 변한 노장에게 신만 빼앗기는 장면이다. 셋째거리는 힘이 센 취발이가 노장으로부터 소무를 빼앗아 살림을 차리는 장면으로 소무는 취발이의 아이를 낳고 취발이는 아이에게 글을 가르친다.

제5사자 춤마당에서는 석가여래의 명을 받고 왔다는 사자가 노승을 꺾어 파계시킨 목중들을 혼내주는 장면이다. 제6양반 춤마당에서는 머슴인 말뚝이가 양반 삼형제를 흑심하게 놀려주나 양반들은 자신들이 망신당하는 것도 모른다. 제7미얄마당에서는 난리로 헤어졌던 영감의 첩인 덜머리집이 등장하여 미얄과 싸운다. 이어 영감은 미얄을 마구 때려 죽이자 무당이 나와서 미얄의 혼백을 위로하는 굿을 하면서 탈춤 전마당이 끝난다.

